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18	10. 25	11. 01
대 표 기 도	정환영 형제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정해욱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10월의 축복 인사 : 감사하며 행복한 10월 되세요!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매일 말씀 묵상은 경건생활의 시작입니다.
4.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추수감사	
합계(Euro)	
온라인헌금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52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최종열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계 3 : 1 - 6(신p 401) (Offenbarung 3:1~6)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사데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을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선교훈련을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사데 교회에게 하신 말씀

사데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살아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생명이 사람이나 건물, 숫자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 줍니다.

I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사데 교회의 명성과 외적인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예배와 봉사로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살아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II 예수님은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것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처음 받았던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흔들릴수록 경험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III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흰옷과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사데 교회 가운데에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흰옷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승리를 나타내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어린양의 피로 얻는 은혜를 보여 줍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며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나 신앙의 경력, 세상의 명성과 물질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왜 예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 신앙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요?